



**정부는** 지난 7월 3일 중장기('90~'94) 石油 수요 전망 및 공급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에 국내 石油수요가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저유가 지속에 따라 경질제품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바, 현 보유 및 기추진중인 정제시설로의 공급대처 전망을 점검해 보고 추가소요 시설확충등 안정공급 방안을 사전에 강구·추진키 위한 것이다.

국내 石油수요는 '88년 및 '89년 1~6월중의 수요급증 추세에 비추어 '90~'94 기간중 연평균 11.7%의 높은 증가를 보여 '94년엔 1,350천B/D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유시설은 안전가동률 80~85% 전제시 177~255천B/D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이분해시설로 전환 계획이던 京仁에너지의 기존시설(60천B/D)을 정유시설로 존속케 하고 경제규모 미달사인 極東精油의 금번 100천B/D 규모 증설신청을 허가, '92년말까지 완공토록할 방침이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및 제트油는 매년 20% 이상의 승용차 급증과 항공수요의 급증에 따라 각각 연평균 19.6% 및 14.2%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등유는 가정 난방연료로서 '90년대 초반까지 크게 증가되나 가스, 전력등의 이용 보급확대로 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며, 경유는 '90년대 들어 디젤차량 증가둔화로 수송용 수요 증가는 둔화되나 난방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10.4%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일 것이다.

또한, B-C油는 제조업 성장 및 저유가 지속으로 산업용 및 발전용을 중심으로 연평균 7.4%의 건실한 증가를 보일 것이며, 나프타의 경우 최근 석유화학 시설의 대폭확충 추진(에틸렌 기준 약6배)으로 연평균 20.4%의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LPG는 '90년대 들어 LNG로의 활발한 대체 및 취사용 수요확대의 한계로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다.

부문별 수요전망에 있어서는 수송부문 비중이 차량 및 수송량 급증 지속과 타 연료대체 불가로 계속 증대되고 공공기타 부문 비중은 점차 감소될 것이며 산업 부문 및 가정·상업부문 비중은 현 수준에서 별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같은 국내 石油수요 물량 증가 및 구조변화에 현보유 및 기추진중인 정제시설로서 공급대처시

국내 정제 공급물량은 '90~'94 기간중 연평균 8.3%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며, 석유제품 수입비중은 '91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6.6%(LPG 및 나프타제외시 18.9%)에 달하였다가 '92년엔 油公 및 京仁의 증질유분해·탈황시설(분해 40천B/D, 탈황 50천B/D)가동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94년 이후엔 석유제품 수입비중이 다시 30% 수준으로 증가되고 생산 특성상 일부 수입이 불가피한 LPG 및 나프타를 제외한 석유제품 수입비중도 20%에 접근하게 되어 다소의 수급불안 가능성이 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국내석유시장 거래비중: 원유 75%, 제품 25%,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비중: 25~30%)

따라서, 국내 石油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정제공급 소요물량을 안정가동률 80%로 생산 가능한 정유시설의 확보와 함께 유종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내 정제 자급도를 75%(LPG 및 나프타 제외시 80%) 이상 유지키 위한 증질유분해·탈황시설의 확충이 필요시 된다.

증질유분해·탈황시설로는 기추진중인 極東 분해시설(34천B/D)을 '89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하고, 油公 및 京仁의 분해·탈황시설(분해 40천B/D, 탈황 50천B/D)은 '92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92년말까지 분해 30천B/D 및 탈황 30천B/D 규모의 추가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94년 이후 국내정제 자급도를 80% 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휘발유 수요급증 및 전면 無鉛化에 대처, 휘발유 주 배합제인 개질유 공급확대를 위해 '94년 이전 총 49천B/D 규모의 개질시설 추가 소요를 정유사별로 증설 추진토록 하며, 계절적 수요변동 및 국제가격 등락이 큰 등·경유등 난방유류 수급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제품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프타의 경우 '93년 이후 수입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급안정을 위해 상공부등 관계기관과 협조, 석유화학업체별로 장기적인 나프타 소요물량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투입 원료의 다원화 추진을 유도키로 하였다. □

□ 해외석유정책 □

## 日本 석유제품무역규제 완화한다

日本정부는 휘발유, 등유, 석유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日本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수요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美國으로부터의 제품수입 확대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①우선 제품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수출무역관리령(貿易令)을 고쳐 수출을 인정하고, ②중기적으로 제품수입을 정유회사에 한정시키고 있는 특정석유제품수입감정조치법(特石法)이 끝나는 오는 95년 이후에 수입을 완전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日本정부는 자원에너지청내에 국제석유구조연구회를 설치, 내년 봄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日本의 석유제품무역은 수출에 대해서는 貿易令에 따라 신고제로써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特石法(86~95년)에 따라 정제시설을 갖춘 석유회사에 한정시키고 있다. 日本정부는 수입은 정유회사 이외의 다른 업종기업에도 개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성은 국내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90년부터 휘발유생산지도제를 철폐하는등 일련의 규제완화계획을 추진중이며, 무역자유화는 규제완화후의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는 ①세계와 日本제품무역, 제품시장의 전망, ②日本 석유회사의 국제경쟁력, ③수출입규제완화를 위한 조건정비등에 관해 검토하게 된다.